

koreatimes.com

 **한국일보**

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하겠다

입력일자: 2014-08-19 (화)

"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"

미주한국학교연합회(KOSAA) 학술대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의 이종미 부장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(총회장 최미영) 및 북가주 지역협의회(회장 장은영)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약속했다.

이종미 부장은 지난 18일 한국학교협의회관계자들을 만나 각 지역에서 역량을 갖춘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실정을 반영한 교재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.

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"맞춤형 지원의 첫 열매는 지난 5월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 역사문화교육 위원회에서 발간한 역사문화 교육과정인 그 좋은 예"라면서 "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'한국을 찾아라'와 '한국을 알자'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여 현재 전 세계의 많은 학교에서 책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"고 전했다. 그는 앞으로 이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맞춤형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.

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미 부장과 한국학교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학교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의 한국어 및 정체성 교육 강화를 위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단데 한 목소리를 냈다.

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학교 교육으로 정규학교의 외국어 프로그램의 크레딧을 받는 방법이나 고등학생 등이 한국학교의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을 강화하는 일을 예로 들었다.

이 밖에도 한국학교의 앞날을 위해 차세대 보조교사 및 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세대로 이어져 가야 한단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.

< 이광희 기자 >

학술대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의 이종미 부장이 재미한국학교협의

회 관계자들과 북가주지역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약속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. 왼쪽부터 장동구, 황희연, 최미영, 이종미 부장, 장은영, 한희영, 정해창

<사진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>

Copyright © koreatimes.com All rights reserved. E-mail to webmaster